

News

무디스 "韓 시중은행 유동성 양호...이익·자산 리스크 여전"

연합인포맥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유동성이 자금난에도 개선...다만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로 순이자마진(NIM) 및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이 부실화할 가능성은 여전
"4대 은행 평균 NPL 비율은 0.4%로 전분기와 변함이 없으나 중소기업 영업이 여전히 어려울 것...전분기와 변함이 없으나 중소기업 영업이 여전히 어려울 것"

은행 키코 배상 지연에... 피해기업들, 법원조정·경찰조사 추진

파이낸셜뉴스

신한·하나·대우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5번째 연기하자 키코 공대위가 경찰 수사와 법원 조정 등 다각도의 추가대응에 나서...
이에 따라 오는 6월 8일까지 배상 여부를 결정키로 한 3개 은행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 하지만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

우리은행 소상공인 대출 소진 압박... 타행들은 깊은 한숨

머니투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접수를 마감.... 목표 대출 규모 4,000억여원을 빨리 실행한 까닭
타 은행들은 이차보전 대출이 절박함과 명분이 뚜렷하긴 하나 은행의 실적이나 위험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해 대출에 소극적...

DGB금융 1분기 순이익 882억원...작년 동기비 15% 감소

연합뉴스

작년 1분기 발생한 100억원의 일회성 이익 소멸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락한 시장금리 등 영향을 고려하면 양호한 실적...
은행의 원화 대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도 0.10%포인트, 0.04%포인트 개선...

'포스트 코로나' 대비 나선 생보사,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주목

국민일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사회·경제적 트렌드로 자리잡고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후에도 비대면 건강관리 대한 사회적 관심 지속할 것
생보협회 관계자, "...생보사의 언택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장기적으로 개인의료비도 감소할 것"

손해보험업계 이어지는 인력감축...현대해상 3년 만에 희망퇴직

한국경제

손해보험업계 2위 현대해상이 3년 만에 희망퇴직...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제2의 인생' 설계를 돕는 12종의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
업황이 나빠진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인력 감축이 이어져...최근 중위권 업체인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약사손해보험 등도 희망퇴직 실시

몸통보다도 커진 ELS...대형증권사 10곳 중 6곳 더 못판다

매일경제

금융당국, ELS 판매 총량규제 추진...판매에 제동을 걸 경우 대형 증권사 10곳 중 6곳이 당장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
업계선두 삼성證·KB證·한투 등 이미 자기자본 대비 100% 넘겨...중소형 증권사에는 기회될수도...고수익률 제시 ELS 줄어들듯

5년 만에...적자 벗어난 토스

한국경제

토스의 흑자 전환은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처음...토스의 연 매출은 2016년 34억원에서 지난해 1187억원으로 3년간 약 35배 늘어
기업 간 거래(B2B) 수수료 수익이 전체 매출의 83%를 차지...오픈뱅킹이 시행돼 전체 비용의 10%가량을 차지했던 은행 수수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